

# 傷寒明理續論·動氣의 8證에 대한 研究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申裁成 · 申榮日\*

## A Research on the Epidermic disease of Abdominal Impulse etc. in SangHanMyungRiSokLon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Shin Je-sung · Sheen Yeong-il**

Impulse of ki refers to palpitation around the navel, it is mostly caused by impairment of yang due to erroneous sweating, deficiency of the spleen yang. Behcet's syndrome caused by prolonged damp-heat and pathogenic germs. Its symptoms are characterized by conjunctival congestion, blue canthus and ulceration of the oral cavity, restlessness all the time, etc. It is advisable to follow the therapeutic principles of clearing away heat and drying damp, detoxicating and sterilizing. Lily disease is one of the emotional disease. It caused by yin deficiency of the heart and lung, found in mental depression or convalescence after a critical disease. Its symptoms are characterized by restlessness, reticence, insomnia, failure to walk, poor appetite, a subjective hot or cold, bitter taste and dark urine. It is advisable to follow the therapeutic principle of nourishing yin to clear away heat. Cholera refers to the disease marked by sudden severe vomiting and diarrhea, and colic of the heart and the abdomen. It is mostly caused by deficiency of the ki in the middle-energizer, emotional stress, etc. It is characterized by such symptoms as sudden severe vomiting and diarrhea, restlessness, etc. It is advisable to follow the therapeutic principles of warming yang and removing toxic substances, and strengthening the spleen and stomach. Heat invasion of blood chamber due to affection of the exterior pathogens, pathogenic heat invading the blood in deficiency and fighting with the blood. Its symptoms are marked by fever, feeling of the fullness, etc. There are deficiency of blood, hot blood and stasis of blood. The different therapeutic treatment should be taken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thereof.

Key Words : SangHanMyungRiSokLon(傷寒明理續論), Abdominal Impulse

## I. 緒 論

『傷寒明理續論』은 陶華<sup>1)</sup>의 末年 著作인 傷寒六書

\* 교신저자: 申榮日,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61) 330-3511, maggie@dsu.ac.kr

1) 陶華의 字는 尙文이고, 號는 節庵이며 餘杭人이다. 洪武 2年(1369年)에 태어나서 正統十年까지(1445年) 77歲를 生存하였다. 어려서부터 儒學을 공부하여 百家에 널리 通하였으며 훌륭한 스승을 만나 그에게서 秘藏한 醫籍을 받고 軒岐의 醫術에 精通하였으며 傷寒論에 대해 研究精進하여 奧妙한 이치를 깨닫고 새로이 발명한 것이 많았다. 永樂年間(1403-1424)에 醫學訓科에 나아갔고, 宣德年間(1426-1435)에 벼슬에 올랐다. 陶氏는 일찍이 杭州에서 醫業을 시작하였는데, 切脈에 精通하여 古法에 엄매이지 않고 證에

가운데 맨 나중에 있는 것으로 漢代이전의 傷寒病의 證候와 脈象과 處方에 대하여 그의 醫學思想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논술이다. 그는 이 책에서 金代의 成無己가 저술한 『傷寒明理論』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아 서두에 傷寒三陰三陽脈證論, 陰陽虛實用藥寒溫辯, 六經用藥格法, 陰陽虛盛用藥寒溫辯, 三陰三陽脈證, 汗下溫正法, 傷風見寒傷寒見風脈證, 三陽合病, 太陽陽明併病 등의 총론적인 면을 추가하였고, 아울러 溫病의 범주에 속하는 春溫變熱, 痧, 風濕溫濕, 風濕中濕, 溫毒中暈을 추가하여 단지 50證候의 해설에 그친 『傷寒明理論』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傷寒明理續論』이라 제목을 붙인 것이다.

그는 傷寒論을 연구하면서 『傷寒全生集』, 『傷寒六書』를 저술하였는데, 모두 王叔和의 編制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傷寒全生集』은 元 亨利 貞의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元에서는 傷寒의 특징 즉 察病法, 脈法, 合病, 標本등의 총론적인 면을 다루었고, 亨과 利에서는 三陽病에서 흔히 나타나는 證候인 發熱, 惡寒, 煩躁, 頭痛, 口渴, 蓄血 등에 대해 論述과 用藥을 제시하였고, 貞에서는 三陰病, 霍亂, 陰陽易 등의 證候를 중심으로 논술하고 있어서 임상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반해 『傷寒六書』는 『傷寒瑣言』, 『傷寒蒙秘』, 『殺車槌法』, 『傷寒證脈藥截江網』, 『一提金』 및 『傷寒明理續論』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全生集』에 비해 論述이 간략하여 후에 外感病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要點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傷寒蒙秘』는 發熱, 頭痛, 汗出, 煩熱 등 70여 證候에 대하여 각각 鑑別, 治法, 治方을 자세히 논한 것이고, 『傷寒瑣言』은 傷寒論의 編制, 傷寒의 脈法, 用藥, 溫病 등 傷寒論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면에 대해 자세하게 論述하고, 아울러 諸方에서 새로운 處方에 대한 用例와 解說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殺車槌法』은 劫病法, 制藥法, 解藥法, 煎藥法 등 藥을 제조하는 방법과 그가 創方한 37종의 處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一提金』은 六經病의 辨證法, 診脈法, 用藥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傷寒證脈藥截江網』은 仲景先

師의 治法이 石函에 보관된 遺芳嘉秘를 얻어 보고서 그가 임상에 적용하여 틀림이 없는 것들만을 모아 만든 것으로 傷寒의 原因, 日數에 따른 轉變原則, 病證의 관찰방법, 標本論治, 生死鑑別 및 婦人傷寒의 差異點을 논술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傷寒明理續論』은 王叔和가 편제한 傷寒論의 條文에 따른 연구방법을 탈피하여 許叔微의 『傷寒發微論·72證候』와 成無己의 『傷寒明理論』의 형식으로 傷寒病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후를 중심으로 논한 것이다. 陶華는 前人들의 論點이 비록 여러 증후에 대해서 논하였지만 상세하지 못한 것과, 비록 상세하긴 하나 다만 50證에 對해서만 究明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 보고들은 바를 모아 分類하고 例를 넣고 參작하여 外感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病證鑑別法, 溫病, 婦人傷寒 등의 면에서는 傷寒溫病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動氣는 心下悸 臍下悸의 내용을 포함한 상하 복부에서 나타나는 모든 悸證을 총괄하는 의미로 臟氣가 조화롭지 못하고 水氣가 쌓여서 발생한다고 보아 五臟 중에서 中州인 脾와 관련이 깊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치료는 理中湯에서 白朮을 빼고 桂枝를 加하여 通用方으로 쓰고 아울러 上下左右로 분류하여 上에는 李根湯, 下에는 먼저 大橘皮湯을 투여한 후 小健中湯, 左에는 먼저 防風白朮牡蠣湯을 투여한 후 健中湯, 右에는 먼저 五苓散을 투여한 후 竹葉石膏湯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狐惑과 濕蘞에 대하여 寄生蟲이 陰部를 짓무르게 하는 것을 狐라 하고 아랫입술에 瘡가 생기며 목구멍이 마른다고 하였고, 寄生蟲이 臟을 갇아 먹는 것을 惑이라 하고 윗입술에 瘡가 생기며 목이 쓴다고 하였고, 濕蘞은 水濕이 내부로 침입하고 腸蟲이 臟腑를 갇아먹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였다.

百合病에 대하여 大病이나 虛勞의 뒤에 모든 經脈이 邪氣의 침범으로 인하여 臟腑가 평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證候에 따라 20일에서 60일까지 장시간에 걸쳐 치료해야한다고 하였다.

霍亂을 三焦로 나누고 邪氣가 上焦에 있는 것은 吐 하나 下利하지 않으며 下焦에 있는 것은 下利하나 吐

따라 새로운 處方을 創方하였으며, 奇異한 疾病이라도 손을 쓰면 바로 나았기 때문에 ‘陶一帖’이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하지 않고 中焦에 있는 것은 마하면서 下利한다고 하였고, 乾霍亂으로 죽는 것은 많고 濕霍亂으로 죽는 경우는 적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傷寒論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한층 연구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傷寒明理續論』의 맨 뒤에는 앞에서 논한 여러 證候에서 빠진 것이나 복잡한 것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痰證, 傷食, 虛煩, 脚氣의 4 證候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과 治方을 제시하고 ‘傷寒四證類玄’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이는 原本에는 있었으나 전해지는 版本에 없었던 것을 清代 吳坤安의 『傷寒指掌圖』에서 발췌하여 후에 삽입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되니 앞으로 『傷寒六書』 전편의 판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저자는 『傷寒明理續論』 가운데 動氣의 8 證候에 대하여 校勘 註釋 國譯 考察을 가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研究에 착수하였다.

## II. 研究方法

1. 原文은 黃瑾明의 點校 人民衛生出版社의 『傷寒六書』를 기준하였다.
2. 原文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傷寒論 條文은 脚注처리하고 찾기 쉽도록 뒤에 조문번호를 ( )로 제시하였다.
3. 註釋가운데 內經에서 인용된 문장은 그 출처를 명시하였다.
4.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현대화하였다.
5. 翻譯은 原義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관용구나 따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6. 題目에 알아보기 쉽도록 차례로 일련번호를 붙였다.
7.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註釋에 ‘(00)’, 引用文獻에 ‘『00』’, 脚註는 ‘1), 2), 3)’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 III. 本 論

### 第1章. 動氣

#### 【原文】

動氣<sup>(1)</sup>者는 臟氣不調하야 築築<sup>(2)</sup>跳動이 隨臟所主而形見於臍之左右上下也라 難經에 各藏載之하나니 又有眞氣內虛하고 水結不散하야 氣與相搏 則發奔豚<sup>(3)</sup>하니 以其從氣衝突如豚之奔이니 皆不宜汗下라 然而獨不言脾는 當臍之有動氣者니 脾爲中州라 以行津液하니 妄施汗下면 必先動脾하니 是以로 不言而喻<sup>(4)</sup>也라 左右上下에 不宜汗下니 何況中州之氣를 其敢輕動氣之乎리오 傷寒은 所以看外證爲當者니 蓋不在脈之可見이면 必待問之可得이니 發汗 下를 其可輕舉哉 리오

動氣는 通用理中湯<sup>(5)</sup>에 去白朮 加桂니 白朮은 燥腎閉氣 故로 去之하고 桂는 泄奔豚하니 加之라 一法에 用柴胡桂枝湯<sup>(6)</sup>이라하니 亦良이라 二方은 當看有熱無熱이라

動氣在左를 發汗 則頭眩<sup>(7)</sup>하며 汗下不止하며 筋惕肉瞤<sup>(8)</sup>하야 爲逆하니 先宜防風白朮牡蠣湯<sup>(9)</sup>이요 汗止면 與健中湯<sup>(9)</sup>이라

動氣在右를 發汗 則衄而渴하며 心若煩하며 飲則吐하니 先宜五苓散<sup>(10)</sup>하고 後與竹葉石膏湯<sup>(11)</sup>이라

動氣在上을 發汗 則氣上衝心은 李根湯<sup>1)(12)</sup>이요 動氣在下를 發汗 則心中大煩하며 骨節疼痛하며 目眩하며 食入則吐하니 先宜大橘皮湯<sup>(13)</sup>이요 後與小健中湯이라

動氣在左는 不可下니 下之 則腹滿拘急하며 身雖熱이나 反欲拳엔 先宜甘草乾薑湯<sup>(14)</sup>하고 後與小健中湯이라

動氣在右를 下之 則津液竭하야 咽乾鼻燥하며 頭眩心悸<sup>(15)</sup>하니 宜竹葉石膏湯이라

動氣在下를 下之 則腹滿清穀하며 心痞<sup>(16)</sup>頭眩하니 宜甘草瀉心湯<sup>(17)</sup>이라

#### 【校勘】

- 1) 李根湯: 原本에는 桃根蕩으로 되어 있으나 『傷寒全生集辨傷寒動氣例二十一』에 의거 바꿨다.<sup>2)</sup>

【註釋】

- (1) 動氣: 動氣는 배꼽 상하좌우에서 뛰는 것으로, 심하면 心肺까지 파급되면서 전신이 떨린다. 이는 함부로 發汗 攻下하여 氣血이 크게 손상되어 腎의 納氣作用이 이루어지지 않아 下部를 鼓動하여 발작하는 것이다.
- (2) 築築(축축): 무엇인가 울퉁불퉁 뛰는 모양. 築: 다질 축.
- (3) 奔豚(분돈): 氣가 아랫배부터 치솟아 胸腕部와 咽喉로 치받아 腹痛 惡寒發熱 咳逆 骨痠 少氣 等症이 발생하는 것이다.
- (4) 噓: 告也, 알려줄 유.
- (5) 理中湯: 人參 甘草炙 白朮 乾薑各三兩 물 六升到 넣고 三升이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복용한다.
- (6) 柴胡桂枝湯: 桂枝 黃芩 人參各一兩半 甘草一兩炙 半夏二合半 芍藥一兩半 大棗六枚 生薑一兩半 柴胡四兩 물 七升到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7) 頭眩: 眩暈. 眩이란 사물이 어둡고 불분명하게 보이거나 혹은 혼란한 느낌이 있는 것이고, 暈이란 자신과 주위가 빙빙 도는 듯한 것이다.
- (8) 筋惕肉瞤: 과다하게 發汗하여 津液이 고갈되어 陽氣가 한쪽으로 치우쳐 虛해져서 筋肉을 영양하지 못하여 파르르 떨리고 눈꺼풀이 움직이는 병증.
- (9) 防風白朮牡蠣湯: 防風去蘆頭 白朮 牡蠣炒黃等分 곱게 갈아서 매번 二錢씩 맑은 술이나 미음으로 하루에 두 세번 調服한다.
- (10) 五苓散: 猪苓十八銖(銖는 한냥의 1/24)去皮 澤瀉一兩六銖 白朮十八銖 茯苓十八銖 桂枝半兩去皮를 가루내어 따뜻한 물로 하루에 세 번 方寸匕(1寸 正方形의 약물을 제는 도구로 약 3ml 정도로 金屬藥인 경우 2g 草木藥인 경우 1g에 해당된다.)를 타서 마신다.
- (11) 竹葉石膏湯: 竹葉二把 石膏二斤 半夏半升洗 人參三兩 甘草三兩炙 粳米半升 麥門冬一升去

心을 물 七升到 넣고 二升이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12) 李根湯: 李根湯: 半夏湯洗半兩 當歸一分 芍藥一分 茯苓一分 桂枝一兩 黃芩一分 甘草炙一分 甘李根白皮二合 生薑四片 물 一盞半에 넣고 八分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 (13) 大橘皮湯: 陳皮 人參 甘草 生薑을 달여 복용한다.
- (14) 甘草乾薑湯: 甘草四兩炙 乾薑二兩 물 三升到 넣고 一升半습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돌로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 (15) 心悸: 氣虛나 停飲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스스로 편안하지 않는 것.
- (16) 心痞: 눌러보면 心下가 脹滿하면서 그득하나 아프지 않는 병증
- (17) 甘草瀉心湯: 甘草四兩炙 黃芩三兩 乾薑三兩 半夏半升 黃連一兩 大棗十二枚 人參三兩 물 一斗에 넣고 六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三升이 되도록 달인 후 하루에 세 번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國譯】

動氣는 臟氣가 조화롭지 못하여 배꼽주위가 울퉁불퉁 뛰는 것으로 각각의 臟이 주관하는 부위를 따라 病證이 배꼽의 上下左右에 나타난다. 難經에 動氣는 모든 藏에 있으니 眞氣가 안으로 虛하고 水氣가 흩어지지 않고 맺혀서 眞氣와 더불어 相搏하면 奔豚이 발생한다. 氣를 따라 衝突하는 것이 멎돼지가 들이받는 것과 같으니 모두 汗法과 下法을 쓰면 안된다. 그런 가운데 유독 脾의 動氣를 말하지 않은 것은 脾는 원래 배꼽에서 뛰는 것에 해당하니 脾는 中州이면서 津液을 운행하므로 잘못 汗法과 下法을 쓰면 반드시 먼저 脾氣가 動한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 動氣가 左右 上下에 있건 간에 汗法과 下法을 쓰면 안되니 하물며 어찌하여 中州之氣를 감히 함부로 動하게 할 수 있겠는가? 傷寒은 外證을 보고서 대처해야하니 아마도 脈에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물어서 알아내야 하니 發汗과 下法을 가벼이 쓸 수 있겠는가?

2) 動氣在上 不可汗 汗之 則氣上衝心 宜李根湯

動氣에는 理中湯에서 白朮을 빼고 桂枝를 加한 것으로 통용하는데 白朮은 燥腎하여 氣를 막는 까닭에 빼고 桂枝는 奔豚을 제거 하므로 더한다. 一法에는 柴胡桂枝湯을 투여한다 하니 또한 좋다. 이 두 처방은 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써야한다.

動氣가 배꼽의 좌측에 있는 것을 發汗시키면 머리가 어지럽고 땀이 그치지 않고 흐르며 筋肉이 파르르 떨려서 逆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먼저 防風白朮牡蠣湯을 투여한 다음 땀이 그치면 健中湯을 투여한다.

動氣가 배꼽의 우측에 있는 것을 發汗시키면 코피가 나고 갈증이 생기며 가슴이 답답하고 물을 마시면 바로 吐하는데 이 경우에는 먼저 五苓散을 투여하고 뒤에 竹葉石膏湯을 투여한다.

動氣가 배꼽 위에 있는 것을 發汗시키면 氣가 逆上하여 가슴으로 치미는데 이 경우에는 李根湯을 투여한다.

動氣가 배꼽 아래에 있는 것을 發汗시키면 심하게 心煩하고 骨節이 疼痛하며 눈이 감감하면서 아찔하고 음식을 먹으면 바로 吐하는데 이 경우에는 먼저 大橘皮湯을 투여한 다음 뒤에 小健中湯을 투여한다.

動氣가 배꼽의 좌측에 있는 것은 下法을 써서는 안되니 下法을 쓰면 배가 더부룩하면서 당기고 아프며 몸에는 熱이 나지만 반대로 오그리게 되니 이 경우에는 먼저 甘草乾薑湯을 투여한 다음 뒤에 小健中湯을 투여한다.

動氣가 배꼽의 우측에 있는 것을 下法을 쓰면 津液이 고갈되어 목구멍과 코가 마르며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뛰는데 이 경우에는 竹葉石膏湯을 투여한다.

動氣가 배꼽 아래에 있는 것을 下法을 쓰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 하며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여 놀러도 아프지 않으니 이 경우에는 甘草瀉心湯을 투여한다.

【考察】

본편에서는 배꼽을 중심으로 上下左右에 나타나는 動氣를 誤治하였을 때 나타나는 證候와 治方을 설명하고 있는데, 『難經·十六難』의 動氣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면, ‘臍左有動氣 按之牢苦痛 其病 四肢滿閉癢 溲便難 轉筋. 臍上有動氣 按之牢若痛 其病 煩心

心痛 掌中熱而嘔. 當臍有動氣 按之牢若痛 其病 腹腸滿 食不消體重節痛 怠墮 嗜臥 四肢不收. 臍右有動氣 按之牢若痛 其病 喘欬 酒漸寒熱. 臍下有動氣 按之牢若痛 其病 逆氣 少腹急痛 泄如下重 足脛寒而逆.’라고 하여 動氣를 五臟에 배속하고 증후를 설명하고 있으며, 脾脈에 해당하는 것이 더 보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誤治의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후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動氣의 通用方으로 理中湯 加減方과 柴胡桂枝湯를 제시하고 각각을 오치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후에 따라 治方을 논하고 있는데, 原文의 내용 가운데 動氣가 위에 있을 때 下法을 썼을 경우가 빠져 있어 『傷寒全生集辨傷寒動氣例二十一』의 ‘動氣在上 不可下 下之 則掌握熱煩 身熱 汗自出 欲得水自濯也 宜竹葉湯’을 추가하여 圖表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誤治	位置	證候	治方
動氣	誤汗	左 頭眩 汗下不止 筋 惕肉瞤	先防風白朮牡蠣湯 汗止 與健中湯
		右 衄而渴 心若煩 飲 則吐	先宜五苓散 後與竹葉石膏湯
		上 氣上衝心	李根湯
	誤下	下 心中大煩 骨節疼 痛 目眩 食入則吐	先宜大橘皮湯 後與小健中湯
		左 腹滿拘急 身雖熱 反欲拳	先宜甘草乾薑湯 後與小健中湯
		右 津液竭 咽乾鼻燥 頭眩心悸	竹葉石膏湯
誤下	上 掌握熱煩 身熱 汗 自出	竹葉湯	
	下 腹滿清穀 心痞頭 眩	甘草瀉心湯	

표 1 動氣의 證候와 治方

第2章. 蚘厥 狐惑

【原文】

蚘厥<sup>(1)</sup>은 屬陰厥이니 病人素有寒한대 妄發其汗커나 或汗後身有熱을 又復汗之하여 以致胃中虛冷하여 饑不欲食 食則吐蚘라 而乍靜乍煩者는 蚘或上而或下

也 蟲聞食臭必出하니 所以食則吐蟲也라 虵厥엔 先用理中丸<sup>(2)</sup>하고 次用烏梅丸<sup>(3)</sup>이니 若誤下之하야 利不止엔 用四逆湯<sup>(4)</sup>이라

狐惑<sup>(5)</sup> 濕蘼<sup>(6)</sup>은 皆蟲證也라 蓋腹中有熱한대 入食無多면 腸胃空虛 故로 三蟲<sup>(7)</sup>求食而食人之五臟也라 其候는 四肢沈重 惡聞食氣 默默欲眠 目不能閉 嚙齒<sup>(8)</sup>暗面 眉間赤白黑色하니 變易無常이라 蟲食下部<sup>(9)</sup>爲狐니 下脣有瘡하며 其咽乾이요 蟲食其臟爲惑이니 上脣有瘡 其聲啞라 治蘼은 通用桃仁湯<sup>(10)</sup> 黃連犀角湯<sup>(11)</sup> 雄黃銳散<sup>(12)</sup>이요 無陽者는 用金液丹<sup>(13)</sup>이라

厥陰爲病은 消渴 氣上衝心 饑不欲食 食則吐虵니 曰胃寒에 復有消渴<sup>(14)</sup>之證이라 蓋熱在上焦而中焦 則但寒無熱矣니 又有大便難一證은 竝用理中湯에 加大黃 入蜜少許하야 微利之라

【註釋】

- (1) 虵厥: 蛔厥이라고도 하며 厥陰病에 본래 寒證이 있는데 잘못 發汗하거나 發汗한 後에 몸에 熱이 나서 거듭 發汗하여 胃中이 虛冷해져서 배가 고프나 먹지 못하고 먹으면 虵蟲을 吐하며 잠깐 安靜하다가 잠깐 煩熱이 나고 가끔 虵蟲이 올라오는 병증이다.
- (2) 理中丸: 人參 甘草炙 白朮 乾薑各三兩 細末하여 계란 노른자정도로 蜜丸을 만든 다음 따뜻한 물에 하나를 개어서 따뜻하게 복용하는데 낮에는 세 번 밤에는 두 번 복용한다.
- (3) 烏梅丸: 烏梅三百個를 苦酒에 하루밤 재운 다음 씨를 제거 하고 쌀 다섯 되를 위에 덮고 밥이 될 정도로 찌서 烏梅만 꺼내어 찌는다. 細辛六兩 乾薑十兩 黃連一斤 當歸四兩 附子六兩 蜀椒四兩 桂枝六兩 人參六兩 黃柏六兩 각각 따로 가루 내어 고르게 섞은 다음 烏梅와 함께 절구에 넣고 찌어서 꿀로 梧桐子만하게 丸을 만들어 하루에 세 번 식사전에 10~20개씩 복용한다. 生冷 滑物 臭食等은 금한다.
- (4) 四逆湯: 甘草二兩炙 乾薑一兩半 附子一枚生用 去皮破八片 물 三升到 넣고 一升二合이 될 때

까지 달인 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반으로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 (5) 狐惑(호혹): 狐蠱(호역)이라고도 한다. 蟲毒에 감염되어 濕熱이 뭉쳐서 눈이 충혈되고 눈자위가 검어지며 구강 인후 및 前陰 後陰이 짓무르는 瘡양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 (6) 濕蘼(습늪): 水濕이 내부로 침입하고 腸蟲이 臟腑를 갉아먹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 (7) 三蟲: 長蟲, 赤蟲, 蟻蟲.
- (8) 嚙齒(교치): 이를 가는 것.
- (9) 下部: 陰部.
- (10) 桃仁湯: 桃仁一兩 槐子一兩 艾葉一兩 大棗十五枚 물 큰 사발 2개 반에 한 사발 반이 되도록 달여 세 번 나누어 복용한다.
- (11) 黃連犀角湯: 黃連半兩 犀角一兩 烏梅七個 木香一分 물 큰 사발 2개 반에 한 사발 반이 되도록 달여 세 번 나누어 복용한다.
- (12) 雄黃銳散: 雄黃 青松子 苦參 黃連 桃仁을 각각 細末하여 날 썬을 찢어 짜낸 즙으로 새끼 손가락 만하게 丸을 만들어 형겅에 싸서 향문에 넣고, 다시 雄黃과 艾葉을 태워 연기를 쏘인다.
- (13) 金液丹: 細末해서 바람에 날려 고운 것만을 취한 硫黃을 자기로 만든 盒에 채우고 赤石脂를 물로 개어서 틈새를 밀봉하고 다시 소금을 섞은 진흙으로 그 위를 밀봉한다. 먼저 작은 항아리를 땅속에 an고 물을 가득 부은 다음 그 속에 盒을 넣고 진흙으로 입구를 막는다. 약한 불에 7일 동안 밤낮으로 충분히 달군 후 식으면 꺼내어 곱게 細末한다. 매회 한냥씩 찌서 떡으로 만들어 끓는 물에 담갔다가 건져 물기를 제거한 후 梧桐子大의 丸으로 빚는다. 매번 30丸씩 많게는 100丸을 공복에 미음으로 복용한다.
- (14) 消渴: 渴症이 나나 물을 먹어도 오줌의 양이 적어지는 병증이다.

【國譯】

虵厥은 陰厥에 속한다. 환자가 본래 寒證이 있는데 잘못 發汗하거나 或 發汗한 後에 몸에 熱이 있는

것을 다시 發汗하여 胃中이 虛冷하여 배가 고프나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먹으면 蛔虫을 토하는 것이다. 잠깐 잠잠하다가 다시 煩症이 생기는 것은 蛔虫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이요, 蛔虫은 음식 냄새를 맡고 나오니 음식을 먹으면 바로 蛔虫을 토하게 되는 까닭이다. 蛇厥에는 먼저 理中丸을 투여하고 다음에 烏梅丸을 투여해야 하는데, 만약 잘못 下法을 써서 下利가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四逆湯을 투여한다.

狐惑과 濕蘞은 모두 蟲證이다. 대개 腹中에 熱이 있는데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면 腸胃가 空虛해진 까닭에 三蟲(長蟲, 赤蟲, 蠅蟲)이 먹이를 찾아 사람의 五臟을 침범하여 갉아 먹는다. 證候는 四肢가 沈重하고 음식냄새를 싫어하며 묵묵히 잠만 자려하나 눈을 감지 못하며 이를 갈고 안색이 어두우며 眉間에 赤色 白色 黑色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寄生蟲이 陰部를 갉아 먹는 것을 狐라 하니 아랫입술에瘡이 생기며 목구멍이 마르고, 臟을 갉아 먹는 것을 惑이라고 하니 윗입술에瘡이 생기고 쉰 목소리를 낸다. 濕蘞의 치료는 桃仁湯 黃連犀角湯 雄黃銳散을 通用하는데, 陽氣가 없는 경우에는 金液丹을 투여한다.

厥陰病은 消渴하고 氣가 心으로 上衝하며 배가 고프나 먹지 못하고 먹으면 蛇蟲을 토하니 이미 胃가 寒한데다가 消渴이 더 있는 것으로, 熱은 上焦에 있고 中焦에는 寒만 있고 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大便이 나오지 않는 實證에는 理中湯에 大黃과 꿀 조금을 加하여 약간 下利시킨다.

【考察】

蟲病에 대하여 『金匱要略』에서는 蟲病으로 濕熱이 쌓여 발생한다고 보고 上部를 침습한 것은 甘草瀉心湯, 前陰을 침습한 것은 苦蔘湯, 後陰을 침습한 것은 雄黃熏劑, 열이 없고 이미 化膿한 것은 赤小豆當歸散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본편에서는 '蛔厥은 輕證으로 理中丸 烏梅丸로 쉽게 치료할 수 있으나, 狐惑과 濕蘞은 重證으로 扁鵲과 같은 名醫도 바라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狐惑을 寄生蟲이 陰部를 갉아 먹는 것을 狐라 하니 아랫입술에瘡이 생기며 목구멍이 마르고, 臟을 갉아 먹는 것을 惑이라고 하니 윗입술에瘡이 생기고 쉰 목소리를 낸다고 하여 분류하였고, 狐惑과 濕蘞의 치

료는 桃仁湯 黃連犀角湯 雄黃銳散을 通用하는데, 陽氣가 없는 경우에는 金液丹을 투여한다.'고 하였으니 상호 비교할 만하다. 또한 『傷寒全生集辨傷寒狐惑例十八』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며 쉽게 人命을 앗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臨床時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病證이다.

第3章. 百合病

【原文】

百合<sup>(1)</sup>者는 百脈一宗하야 舉身皆受病이니 無復所謂經絡傳次也니 大病虛勞之後에 臟腑不平하야 變而成此라 其狀은 似寒無寒하며 似熱無熱하며 欲食不食하며 欲臥不臥하며 欲行不行하며 口苦便赤하며 藥入則吐利也라 其脈微數하고 每尿 則頭痛은 六十日愈요 頭痛者 但漸漸然惡寒者는 四十日愈요 若尿則快然하고 但頭眩者는 二十日愈니 百合知母湯<sup>(2)</sup> 百合地黃湯<sup>(3)</sup> 滑石代赭湯<sup>(4)</sup> 鷄子湯<sup>(5)</sup> 百合洗方<sup>(6)</sup>을 可選用之라

【註釋】

- (1) 百合: 百合病으로 『金匱要略』에서는 百脈이 모두 병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心肺陰虛로 인해 말이 없고 잠을 자지 못하며 걷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惡寒과 發熱이 있는 듯 없는 듯하고 정신이 불안하며, 혼자 중얼거리고 입이 쓰며, 소변이 붉고 脈이 微數한 등의 內熱 증상을 수반한다.
- (2) 百合知母湯: 물로 百合七枚를 씻어 물에 하룻밤을 담갔다가 흰 거품이 나오면 꺼내어 우물물 二升到 넣고 一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린다. 따로 知母二兩을 우물물 二升到 넣고 一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린다. 두개의 달인 것을 섞어 一升半이 되도록 다시 달여 따뜻하게 두 번 나누어 복용한다.
- (3) 百合地黃湯: 百合七枚 生地黃汁一升 물로 百合七枚를 씻어 물에 하룻밤을 담갔다가 흰 거품이 나오면 꺼내어 우물물 二升到 넣고 一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生地黃汁을 넣고 一升五合이 되도록 다시 달여 두 번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 (4) 滑石代赭湯: 百合七枚 滑石三分 代赭彈丸大一枚 물로 百合七枚를 씻어 물에 하룻밤을 담갔다가 흰 거품이 나오면 꺼내어 우물물 二升到 一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린다. 따로 滑石分 代赭를 우물물 二升到 一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린다. 두개의 달인 것을 섞어 一升半이 되도록 다시 달여 따뜻하게 두 번 나누어 복용한다.
- (5) 鷄子湯: 百合七枚 鷄子黃十枚 물로 百合七枚를 씻어 물에 하룻밤을 담갔다가 흰 거품이 나오면 꺼내어 우물물 二升到 一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鷄子黃을 넣고 골고루 섞어 五分이 되도록 다시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 (6) 百合洗方: 百合一升을 물 한 말에 하룻밤 동안 담갔던 물로 씻은 다음 소금기가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다.

【國譯】

百合病은 百脈이 한결같이 온몸이 病邪를 받은 것으로 다시금 經絡의 차례로 전변한다고 말할 수 없으니, 病을 크게 앓아 虛勞한 뒤에 臟腑가 平安하지 못한 것이 변하여 발생한다. 證狀은 몸이 차가운 것 같으나 차갑지 않고 熱이 있는 것 같으나 熱이 없으며 음식을 먹고자 하여도 먹을 수 없고 잠을 자려하나 잘 수가 없으며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으며, 입이 쓰고 小便色이 붉으며 藥을 먹으면 嘔吐泄瀉한다. 脈이 微數하며 매번 소변을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60일이 지나야 낫는데, 머리가 아프고 오싹오싹하게 惡寒하는 경우에는 40일이 지나야 낫고, 소변을 상쾌하게 잘 보고 단지 머리만 어지러운 경우에는 20일이면 나으니 百合知母湯 百合地黃湯 滑石代赭湯 鷄子湯 百合洗方을 골라서 투여한다.

【考察】

百合病 名命에 대하여 魏荔形은 ‘치료 主藥이百合이므로 百合病이라한다.’고 하였고, 徐忠可는 ‘百脈이 모두 病든 것을 百合病이라한다.’고 하였고, 飯田鼎在는 ‘과도한 合房으로 인한 것이므로 百合病이라한다.’고 하였으니 참고할 만하다.

百合病의 원인에 대하여 孫思邈 王燾 徐忠可 程林 등은 傷寒의 虛勞로 인한 大病 후에 인체의 正氣가 허약하여 營衛氣血이 失調한데 餘邪가 남아서 발생한다고 보았고, 趙以德은 情志所傷으로 보았으며, 吳綏는 傷寒을 誤治하여 正氣가 허약해져 발생한다고 보았고, 飯田鼎在는 房勞過多로 보았는데, 先天 後天의 陰陽氣가 모두 허약하여 心主血 肺主氣의 氣血循環이 원만하지 않은데다 餘邪가 남아 陰虛內熱의 증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모두 일리가 있다.

百合病 치료의 主藥인百合은 清心潤肺 安神益氣 補虛清熱하는 작용이 있으며, 우물물은 清熱利尿 導熱下行하니,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여기에 清熱滋陰 除煩止渴하는 知母, 降逆和胃하는 代赭石, 清熱利尿하는 滑石, 滋陰涼血하는 地黃, 滋陰涼血 和胃安神하는 鷄子黃을 加하여 복용한다.

脈微數에 대하여 『金匱要略』에서는 위 문단에 붙여서 百合病에 나타날 수 있는 主脈으로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아래 문단에 붙여 豫候를 판정하는 하나의 脈狀으로만 보고 있으니 예후의 내용을 살펴볼 때 『金匱要略』의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착오는 陶華의 잘못인지 아니면 후세에 책을 편집할 때 잘못 된 것인지 좀더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第4章. 不仁

【原文】

不仁<sup>(1)</sup>은 謂不柔和也라 經에 曰諸虛承寒 則爲鬱胃<sup>(2)</sup>不仁이라하니 蓋其血氣虛少하여 不能周流於身하면 是爲邪氣所伏 故로 肌體頑麻不知痛癢<sup>(3)</sup>하니 寒過厥如屍而鬱且胃也라 設或脈浮而洪하며 身汗如油하며 喘而不休하며 水漿不下하며 形體不仁은 又此爲命絕也라

經에 曰少陰脈不至하여 腎氣微하여 精血少하면 寒氣上奔하여 血結心下하고 陽氣退下하여 熱歸陰股하여 與陰相動하여 人身不仁은 此爲屍厥<sup>(4)</sup>이라하니 以鬱胃不仁으로 爲可刺之而得痊者는 實神醫之診也라 甘草乾薑湯 桂枝芍藥湯<sup>(5)</sup> 加乾薑 桂枝麻黃各半湯<sup>(6)</sup>을 宜消息<sup>(7)</sup>選用之라

【註釋】

- (1) 不仁: 피부의 감각기능이 둔해지거나 상실된 것이다. 『靈樞逆調論』에서 ‘榮氣가 허하면 不仁한다<sup>3)</sup>’고 하였는데, 『類經』의 注에 ‘不仁이란 통증 가려움 차가움과 뜨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2) 鬱冒: 『醫學入門』에 ‘鬱冒는 不仁不省이다. 鬱이란 기가 잘 소통되지 않는 것이고, 冒란 정신이 맑지 못한 것으로 즉 昏迷라고 한다. 內經에서 각종 虛證에 寒邪가 침입하면 厥症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鬱冒不仁이란 寒邪가 虛를 틈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마치 머리를 무엇으로 싸맨 것 같고 갑자기 人事不省이 발생하는데 眩冒보다 심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3) 痺痒: 일반적으로 陰證은 痛症이 있고 陽證은 痒症이 있다.
- (4) 屍厥: 갑자기 人事不省하여 마치 죽은 것 같이惡候가 발생 하는 것. 증상은 손발이 차고 肌膚에 촉쌀 같이 생기며 얼굴은 靑黑色을 띠고 정신이 황홀하며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어금니를 악물고 비틀거리다 쓰러지며 호흡이 가늘고 약하여 이어지지 않으며 脈이 微弱하여 끊어질 것 같은 증상이 있다.
- (5) 桂枝芍藥湯: 桂枝 芍藥 防風 黃耆 炙甘草 各等分 大棗二枚를 물 1升到 넣고 8분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 (6) 桂枝麻黃各半湯: 桂枝一兩十六銖 芍藥 生姜切 甘草炙 麻黃各一兩去節 大棗四枚擘 杏仁二十四箇 물 五升到 먼저 麻黃을 한소끔 달여 거품을 제거한 다음 나머지 藥을 넣고 一升八合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六合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7) 消息: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 늘이고 줄여서 적당하게 조절한다는 뜻이다.

【國譯】

不仁은 부드럽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한

3) 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127.

다. 經에 여러 虛證에 寒邪가 침입하면 鬱冒하고 不仁한다 하였으니 대개 血氣가 虛少하여 능히 몸에 두루 퍼지지 못하면 邪氣가 잠복하는 까닭에 肌體가 뻣뻣해지고 아픈지 가려운지를 알 수 없으니 寒氣가 심하면 시체처럼 차가워져 鬱冒하게 된다. 가령 脈이 浮하면서 洪하며 몸에 기름처럼 땀이 방울방울 맺히고 喘症이 그치지 않으며 물을 마시지 못하며 形體가 부드럽지 못한 것은 生命이 다한 것이다.<sup>4)</sup>

傷寒論에 少陰脈이 이르지 아니하여 腎氣가 衰微하여 精血이 적어지면 寒氣가 위로 치밀어 올라 血이 心下에 맺히고 陽氣는 아래로 물러나서 熱이 陰股로 들어가서 陰氣를 蠢動하여 몸이 不仁하게 되는 것을 屍厥이라하니 鬱冒不仁으로 보아 刺針하여 낮게 할 수 있는 것은 실로 神醫만이 할 수 있는 診法이다. 甘草乾薑湯, 桂枝芍藥湯에 乾薑을 加한 것, 桂枝麻黃各半湯을 參작하여 골라 투여해야 한다.

【考察】

『類經』에서 ‘不仁은 통증 가려움 차가움과 뜨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不仁을 피부의 감각기능이 둔해지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았으니, 手足不利 등의 不利의 개념은 근육의 운동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第5章. 霍亂

【原文】

霍亂<sup>(1)</sup>者는 上吐下利가 揮霍<sup>(2)</sup>而撩亂<sup>(3)</sup>者 是也라 邪在上焦는 吐而不利요 邪在下焦는 則利而不吐요 邪在中焦는 旣吐且利라 然이나 胃氣爲邪氣所傷하야 陰陽乖隔하야 遂上吐而利也라야 乃謂霍亂이니 其餘但稱吐利者로 有以異也라 故로 以乾霍亂<sup>(3)</sup>으로 死者多하고 濕霍亂<sup>(4)</sup>으로 死者少라 吐利 則所傷之物을 得以泄出하야 胃中水穀盡也라

【註釋】

4) 脈浮而洪 身汗如油 喘而不休 水漿不下 體形不仁 乍靜乍亂 此爲命絕也 『傷寒論辨脈法』

- (1) 霍亂: 揮霍擾亂의 줄임말로, 寒溫不調로 인해 陰陽清濁의 두 氣가 腸胃사이에서 뒤엉켜 위로는 嘔吐하고 아래로는 泄瀉하는 病證.
- (2) 揮霍: 빠르고 가볍게 너울거리는 모양.
- (4) 撩亂: 가지런하지 못하고 어지러운 것.
- (5) 乾霍亂: 邪氣가 나오지 않아서 正氣를 막아 陰陽이 離隔하여 上下가 不通하고 腹痛이 심하면서 吐利하러하나 吐利하지 못하고 頭痛發熱하는 霍亂.
- (6) 濕霍亂: 吐利가 동시에 발생하고 쥐어짜듯 배가 아프면서 편안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轉筋이 발생하는 霍亂.

【國譯】

霍亂은 위로는 구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하는 것이 빠르고 요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邪氣가 上焦에 있으면 구토만 하고 설사하지 않으며, 邪氣가 下焦에 있으면 설사만하고 구토하지 않으며, 邪氣가 中焦에 있으면 구토하기도 하고 설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胃氣가 邪氣의 손상을 받아 陰陽이 서로 격리되어 구토하면서 설사해야만 바로 霍亂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기타의 여러 吐利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乾霍亂으로 죽는 경우는 많고 濕霍亂으로 죽는 경우는 적다. 吐利는 손상된 내용물이 구토나 설사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므로 단지 胃中の 水穀이 비게 되는 것이다.

【考察】

단지 邪氣가 中焦에만 머물러 있는 吐利와 胃氣가 邪氣의 손상을 받아 陰陽이 서로 격리되어 구토하면서 설사하는 霍亂을 구별하여 논하였다. 霍亂은 乾霍亂과 濕霍亂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乾霍亂은 손상된 음식물이 나오지 않아 正氣를 막고 陰陽氣가 離隔하여 升降이 통하지 않아 吐利하지 않고 腹痛이 심한 것이고, 濕霍亂은 구토 설사 두통 惡寒 發熱 腹痛하며 或 吐利가 그치면 熱이 나면서 脈을 요란하여 잠복하기도 하며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治法에 대하여 陶華는 『傷寒全生集辨霍亂例』에서 '乾霍亂은 絞腸症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간 사이에 죽을 수도 있으니 급히 皂角末과 麝香을 소금물 한 사발에 타서 손상된 음식물을 探吐하고 절대로 음식

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濕霍亂은 요즘의 食中毒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토 설사를 많이 하여 元氣가 虛脫한 경우에는 맑은 죽을 먹어 元氣를 보충하고, 熱이 심하고 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五苓散을, 中暑로 인한 것은 五苓散에 香薷 扁豆 葛根 黃連을 가하여 쓴다. 寒氣가 많아 腹痛이 있으면서 물을 마시고자 하지 않는 경우에는 理中湯을, 手足이 厥冷하여 脈이 잠복한 경우에는 여기에 附子를 可하고, 嘔吐가 심하면 藿香葉 陳皮 半夏 厚朴을 가하고(霍理湯), 설사가 심하여 小便이 적은 경우에는 理中湯에 五苓散을 합한 理苓湯을 투여한다. 배꼽에 動氣가 있는 경우에는 霍苓湯에 乾薑炒 黃連 乾葛을 가하고, 설사가 그치지 않으면 蒼朮 白朮을 倍用하고 升麻를 조금 넣어 투여한다. 脈虛에는 蔘芪湯을 투여하는데, 轉筋이 있으면 木瓜를 가하고, 寒으로 복통이 심하면 萊菔를 가하여 투여한다. 사지가 厥冷하고 脈이 沈細하며 或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는 裏寒外熱에는 附子理中湯을, 구토 설사하고 熱이 나면서 汗이 나며 惡寒하고 四肢가 厥冷하면서 拘急하는 경우에는 四逆湯을, 吐利가 그쳤는데 아랫배가 아프고 大汗出하며 或 下利清穀 內寒外熱 脈微絶에는 四逆湯에 豬膽汁을 가하여 투여한다.' 고 하였다.

第6章. 瘥後昏沈

【原文】

傷寒瘥後半月以來에 十餘日終不惺惺<sup>(1)</sup>하고 錯語<sup>(2)</sup>少神커나 或寒熱似瘧커나 或潮熱<sup>(3)</sup>頰赤을 醫以風溫<sup>(4)</sup>治之는 非也니 是由發汗不透하여 寒熱在心包絡間也라

瘥後에 昏沈不醒은 知母麻黃湯<sup>(5)</sup>으로 取微汗이요 胃脘有熱하고 虛煩而嘔는 竹葉石膏湯<sup>(6)</sup> 加生薑이요 嘔吐不已하고 膈上有寒은 理中丸이라

瘥後에 從腰以下有水는 牡蠣澤瀉散<sup>(7)</sup>이요 瘥後日暮微煩은 以其病方瘥니 強與穀食하면 不消也요 損穀則愈矣라

【註釋】

- (1) 惺: 惚了慧, 똑똑할 성.
- (2) 錯語: 상황에 맞지 않게 헛소리를 하는 것.
- (3) 潮熱: 發熱이 과도처럼 밀려오면서 일정한 때에 발생하는 것.
- (4) 風溫: 평소에 風邪에 손상되었는데 다시 熱邪에 손상되어 風邪와 熱邪뒤엉켜 발생하는 것으로 發熱 頭痛 咳嗽 口渴 脈微數의 증후가 나타난다.
- (5) 知母麻黃湯: 知母 麻黃 桂枝 甘草 芍藥 黃芩 人參 生地 生薑을 물에 달여 하루에 세 번 복용한다.
- (6) 竹葉石膏湯: 竹葉二把 石膏二斤 半夏半升洗 人參三兩 甘草三兩炙 粳米半升 麥門冬一升去心을 물 七升에 넣고 二升이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7) 牡蠣澤瀉散: 牡蠣熬 澤瀉 瓜蒌根 蜀漆 葶藶 商陸根 海藻 已上各等分 각각 따로 細末하여 모두 용기에 넣고 섞어서 하루에 세 번 따뜻한 물로 方寸匕<sup>5)</sup>만큼 복용한다.

【國譯】

傷寒病이 나옴지 보름 이내에 10여 일 동안 정신이 명료하지 않고 헛소리를 하면서 정신이 없거나 或 寒熱이 학질처럼 왕래하거나 或 潮熱이 있고 얼굴 양옆이 붉어지는 것은 發汗이 완전하지 않아 寒熱이 心包絡에 있는 것이니 風溫으로 보고 치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병이 나은 후에 정신이 흐릿한 경우에는 知母麻黃湯으로 약간 땀을 내고, 胃脘에 熱이 있고 虛煩으로 구역질하는 경우에는 竹葉石膏湯에 生薑을 加하여 투여고, 嘔吐가 그치지 않고 膈上에 寒氣가 있는 경우에는 理中丸을 투여한다. 병이 나은 후에 허리아래가 水氣로 붓는 경우에는 牡蠣澤瀉散을 투여한다.

병이 나은 후에 해질녘에 약간 煩躁하는 것은 병이 나오려는 징조이니 억지로 음식을 먹으면 煩躁가 사라지지 않고 음식이 소화가 되면 낫는다.

【考察】

5) 1寸 正方形의 약물을 제는 도구로 약 3ml 정도로 金屬藥인 경우 2g 草木藥인 경우 1g에 해당된다.

瘥後昏沈은 大病을 앓고 나서 나타나는 증에 따라 表邪가 약간 율체한 경우에는 知母麻黃湯으로, 中焦의 陽氣가 虛해져 津液을 攝取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理中丸을, 虛煩일 경우에는 竹葉石膏湯에 生薑을 加하여 투여한다. 瘥後에 나타날 수 있는 病證이 있으니 큰 병이 나은 후에 氣血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房事를 범하여 재발하는 것이 陰陽易이고, 過勞로 인하여 재발하는 것이 勞復이며, 억지로 음식을 먹어 재발하는 것이 食復이다. 陶華는 이에 대한 處方을 『傷寒全生集』 등에서 들고 있는데, 陰陽易에는 燒棍散 猥鼠屎湯 竹皮湯 乾薑湯 青竹茹湯 當歸白朮湯을, 勞復에는 發熱에 小柴胡湯을, 脈浮에 柴胡桂枝湯을, 脈沈에 調胃承氣湯을, 食復에는 發熱에 梔子豉湯加大黃을, 虛羸微熱에 竹葉石膏湯을 제시하였다.

知母麻黃湯은 差後에 表邪가 율체한데 過食으로 인하여 目昏 微煩한 증이 나타나니 桂枝湯에 人參을 加하여 胃陽을 升達하며 解表하는 麻黃과 餘熱을 歸源시키는 知母 黃芩 生地黃을 넣은 것으로 發表消食 清虛熱하는 효과가 있다.

참고로 竹葉石膏湯은 清熱益氣生津하는 白虎加人參湯에서 餘熱이 심하지 않으므로 知母를 빼고 淡竹葉 麥門冬 半夏를 加한 것으로 大病으로 津液과 胃氣가 모두 허약한데 餘熱이 없어지지 않고 虛熱이 上逆하여 少氣 嘔吐하는 것을 주치한다. 淡竹葉은 石膏와 함께 肺胃의 熱邪를 내리고, 人參 炙甘草은 益氣生津하고 半夏는 和胃降逆하여 嘔證을 치료하고 麥門冬 粳米는 滋陰養胃하니 이 處方은 滋陰清熱 益氣和胃의 효능이 있다.

牡蠣澤瀉散은 下焦에 濕熱이 壅滯하여 水氣가 잘 나가지 않은 實證 水腫에 T쓰는 것으로 牡蠣는 鹹寒하여 軟堅散寒하여 水氣를 운행하고, 澤瀉는 腎膀胱으로 들어가 利水滲濕 泄熱하며, 葶藶子는 辛苦大寒하여 肺膀胱으로 들어가 下氣行水하고, 商陸은 苦寒하여 肺脾腎으로 들어가 通便行水하며, 蜀漆은 祛痰破堅하여 痰水가 맺힌 것을 풀어주고, 海藻는 鹹寒하여 12가지의 水腫을 치료하니 본 方은 三焦를 通利하여 허리아래의 水腫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 第7章. 傷寒四證類玄

### 第1節. 痰證

#### 【原文】

外證은 增寒壯熱<sup>(1)</sup>하며 惡風自汗하며 胸滿하고 氣上衝하야 因不得食이나 但身不疼하며 項不强이라 若涎<sup>(2)</sup>多者는 亦隱隱頭疼이라 脈有寸浮者하며 亦有寸伏者는 以意參之하야 柴胡半夏湯<sup>(3)</sup> 金沸草散<sup>(4)</sup> 大半夏湯<sup>(5)</sup>이요 氣上衝者는 瓜蒂散<sup>(6)</sup>으로 吐之라

#### 【註釋】

- (1) 增寒壯熱: 惡寒發熱이 더욱 심한 것.
- (2) 涎: 痰에 비하여 보다 묽은 것.
- (3) 柴胡半夏湯: 柴胡八兩 人參三兩 半夏二兩半 甘草三兩 黃芩三兩 白朮二兩 麥門冬三兩 콩알크기로 잘라 물 한잔반에 生薑 다섯 쪽 大棗 한 개를 넣고 八분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 (4) 金沸草散: 柴胡三兩 荊芥四兩 半夏一兩 芍藥二兩 細辛一兩 甘草一兩 旋覆花三兩 곱게 갈아서 매번 二錢씩 복용하는데 물 한잔에 生薑 다섯 쪽 大棗 한 개를 넣고 六분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뜨겁게 복용한다.
- (5) 大半夏湯: 半夏 白茯苓 生薑各一分細末 물 二盞半에 넣고 一盞이 되도록 달인 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잠자기 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熱痰이 있으면 炙甘草一分을 加하고 脾胃가 不和하면 甘草를 빼고 陳橘皮一分을 加한다.
- (6) 瓜蒂散: 瓜蒂一分 赤小豆一分 각각 따로 곱게 갈아 섞은 다음 한 숟가락을, 香豉一合을 熱湯 七合에 넣고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즙만 취한 것과 함께 한꺼번에 따뜻하게 토할 때까지 복용한다.

#### 【國譯】

겉으로 나타나는 證은 惡寒發熱이 몹시 심하고 惡風하고 식은땀이 나며 가슴이 답답하고 氣가 위로 치밀어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身痛과 項強症이 없다. 묽은 痰이 많은 경우에는 은은하게 頭痛이 있다. 寸脈이 浮한가 伏한가를 참작하여서 柴胡半夏湯 金沸

草散 大半夏湯을 투여하고, 氣가 위로 치미는 경우에는 瓜蒂散으로 涌吐시킨다.

#### 【考察】

傷寒四證類玄 4證은 傷寒은 아니지만 나타나는 증후가 傷寒과 비슷한 類傷寒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痰證은 惡寒發熱 自汗惡風 胸滿 氣上衝이 나타나 太陽病과 비슷하지만 頭項強痛이 없으므로 太陽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寸脈에 浮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柴胡半夏湯과 金沸草散을 사용하는데, 柴胡半夏湯은 痰熱로 인해 頭痛하고 胸膈이 답답하며 수족에 煩熱이 있고 榮衛가 조화롭지 못하여 마다마디가 당기고 아프며 몸 전체가 동통하고 힘이 없어 누우려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며, 金沸草散은 中脘에 痰이 쌓여 壯熱頭痛하고 뒷목이 뻣뻣하며 때로 寒熱이 왕래하는 類傷風을 치료한다. 伏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大半夏湯을 투여하는데, 熱痰이 있으면 炙甘草一分을 加하고 脾胃가 不和하면 甘草를 빼고 陳橘皮一分을 加하여 사용하고, 氣가 위로 치미는 경우에는 瓜蒂散으로 涌吐시켜 치료한다.

### 第2節. 傷食(1)

#### 【原文】

亦頭疼惡寒하며 身熱이나 但左手脈平和하고 右手脈緊盛으로 知爲食也니 大橘皮湯 二陳湯<sup>(2)</sup>이요 心腹滿痛은 大柴胡湯<sup>(3)</sup>主之요 胸滿嘔吐는 瓜蒂散으로 吐之라

#### 【註釋】

- (1) 傷食: 무절제한 음식 섭취로 脾胃가 손상되어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가슴과 心下部가 그득 하면서 답답하고 트림에 냄새가 나며 속이 울렁거려 구토하고 설사하며 舌苔가 두텁다.
- (2) 二陳湯: 半夏 橘紅各五兩 白茯苓三兩 甘草炙一兩半 麤末하여 매회 四錢에 生薑7쪽 烏梅1개를 加해 물로 달여 수시로 복용한다.
- (3) 大柴胡湯: 柴胡半斤 黃芩三兩 芍藥三兩 半夏半斤洗 生薑五兩切 枳實四枚炙 大棗十二枚擘 大黃二兩 물 一斗二升에 넣고 六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달여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一升씩 복용한다.

【國譯】

飮食傷도 또한 傷寒처럼 頭痛 惡寒 身熱이 있으나 다만 左手脈은 정상이고 右手脈이 緊盛한 것으로 傷食임을 알 수 있으니 大橘皮湯 二陳湯을 투여하고, 心腹이 그득하면서 아픈 경우에는 大柴胡湯으로 치료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嘔吐하는 경우에는 瓜蒂散으로 涌吐시킨다.

【考察】

『東醫寶鑑』에서는 食傷의 脈에 대해 '跌陽脈이 浮하면서 數한 것인데 浮는 胃가 數은 脾가 손상을 받은 것이다. 寸口脈이 弱하면서 遲한 것인데, 弱은 衛氣가 微한 것이고 遲는 榮氣가 寒邪에 맞은 것이다. 寸口脈이 弱하면서 緩한 것인데, 弱은 陽氣가 不足한 것이고 緩은 衛氣가 有餘한 것이다. 寸口脈이 緊한 것은 胸中에 宿食이 소화되지 않은 것이다. 동아줄을 당기는 듯한 緊脈은 宿食이 있는 것이다<仲景>. 陽脈이 滑하면서 緊한 것인데, 滑은 胃氣가 實한 것이고 緊은 脾氣가 손상된 것이다. 脈이 浮滑하면서 疾한 것은 脾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한 것이다<東垣>. 氣口가 緊盛한 것은 傷食이고, 浮滑하면서 疾한 것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것이다<脈訣>. 右寸氣口脈이 急大하고 때로 한번씩 代하면서 澁한 것은 飮食失節하고 勞役太過한 脈이다. 右關脈인 胃脈 나타나지 않고 脾脈이 大數한 것은 飮食不節하고 寒溫失所한 脈이다. 右關脈이 沈하면서 滑한 것은 宿食이 소화되지 않은 것이다<正傳>. 內經에 滑脈은 宿食이니 右關脈이 沈하면서 滑한 것은 宿食이 소화되지 않은 것이다<丹心>.'<sup>6)</sup>라고 하였으니 診脈에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第3節. 虛煩

【原文】

諸虛煩熱은 與傷寒相似로대 但不惡寒하고 頭不疼하고 身不痛이 爲異耳라 表氣虛하니 不可汗이요 裏不實하니 不可下라 叔和 云虛煩有熱은 不可攻이라하니라

【國譯】

모든 虛證의 煩熱은 傷寒의 煩熱과 비슷하지만 단지 惡寒 頭痛 身痛이 없는 점이 다르다. 이는 表氣가 虛한 것이니 汗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裏部가 實하지 않으니 下法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王叔和가 '虛煩하면서 熱이 있는 경우에는 攻下시키면 안된다고 하였다.

【考察】

傷寒의 虛煩은 傷寒病을 發汗 吐法 下法을 썼는데 內氣만 손상되고 外邪는 아직 머물러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梔子豉湯 梔子豉甘草湯 梔子豉生薑湯으로 치료한다. 반면에 雜病의 虛煩은 虛證으로 인해 발생하는 心胸煩熱로,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并治』에서 虛勞 虛煩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에는 酸棗仁湯을 투여한다.<sup>7)</sup> 하였고, 『類證治裁·煩躁』에서 津液枯竭로 인한 경우는 人蔘固本丸에 酸棗仁 竹葉을 加하고, 血虛로 인해 밤에 躁熱이 심한 경우는 當歸補血湯을 사용하고, 腎水가 고갈되어 心火가 上炎하는 경우에는 生料六味丸을 사용하고, 병을 앓고 난 후 熱邪가 남아 있어 虛煩不安한 경우에는 人蔘竹葉湯 竹茹湯을 사용하고, 병이 오래되어 煩熱이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六味地黃湯에 酸棗仁을 加하고, 비만한 사람이 虛煩不眠하고 痰이 형성된 경우에는 溫膽湯을 사용한다.<sup>8)</sup> 하였다.

第4節. 脚氣

【原文】

傷寒은 傳足不傳手<sup>(1)</sup>하니 所以寒濕之氣發於足 則類傷寒<sup>(2)</sup>이라 其證은 頭疼身熱 肢節痛 大便秘커나 或嘔니 但初病時에 起於脚膝屈弱하야 不能移動이 爲異耳라 感於寒은 所患必冷하니 越婢湯<sup>(3)</sup> 小續命湯<sup>(4)</sup>에 入生薑汁이 最妙요 感於暑는 所患是熱하니 小續命 去附子 減桂一半이요 脚腫은 木瓜散<sup>(5)</sup> 檳榔散<sup>(6)</sup>이요 大便秘는 脾約丸<sup>(7)</sup>이라

【註釋】

7) 張機.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210.  
8) 林佩琴. 類證治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6) 許凌.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 428.

- (1) 傳足不傳手: 三陽三陰病이 次序에 따라 傳變하는 것이 足經인 膀胱 胃 膽 脾 腎 肝의 經脈을 따라 傳變하지 手經인 小腸 大腸 三焦 肺 心 心包의 經脈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
- (2) 類傷寒: 나타나는 症狀이 傷寒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태의 病證을 말한다.
- (3) 越婢湯: 石膏半斤 生薑三兩 大棗十五枚 甘草二兩 水 六升到 먼저 麻黃을 달여 거품을 제거하고 다시 모든 약을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복용한다.
- (4) 小續命湯: 附子 人參 川芎 麻黃 防己 黃芩 桂枝 甘草各一兩 麻豆大로 麩末하여 매번 물 한 잔 반에 넣고 한잔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맑은 액 八分에 生薑汁을 넣고 한소끔 다시 달여 낮에는 세 번 밤에는 두 번 따뜻하게 복용한다.
- (5) 木瓜散: 木瓜十兩 檳榔皮 紫蘇 羌活 木香 赤茯苓 橘皮 炙甘草各五兩 세말하여 매회 3錢에 生薑 大棗를 하여 물로 달여 마신다.
- (6) 檳榔散: 檳榔 訶子各二十兩 吳茱萸十五兩 牽牛子三十兩 細末하여 매회 一錢씩 童便 반잔으로 공복에 복용한다.
- (7) 脾約丸: 麻子仁丸 麻子仁二升 芍藥半升 大黃一升 厚朴一升 枳實半斤 杏仁半斤 細末하여 桐子大로 蜜丸을 만들어 하루에 세 번 十丸씩 복용한다.

【國譯】

傷寒은 足經으로 傳變하지 手經으로 傳變하지 않으니 寒濕한 氣가 足部에서 발병하는 것은 類傷寒이다. 그 證狀은 머리가 아프고 몸에 열이 나며 사지마디가 쭈시고 대변을 보지 못하거나 구토하니, 다만 처음에 발병할 때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다가 점차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 다르다. 寒邪에 감촉된 경우에는 환부가 반드시 차하니 越婢湯이나 小續命湯에 生薑汁을 넣어 복용하는 것이 최고로 좋고, 暑邪에 감촉된 경우에는 환부가 熱이 나니 小續命湯에서 附子를 빼고 桂枝를 반으로 줄여 복용하고, 다리가 붓는 경우에는 木瓜散 檳榔散을 투여하고, 大便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脾約丸을 투여한다.

【考察】

‘傷寒傳足不傳手’에 대하여 陶華는 『傷寒瑣言論傷寒傳足不傳手之誤』에서 ‘傷寒은 足經에만 전할뿐 手經에는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겨울철은 腎水가 用事하므로 날씨가 매우 추우면 足少陰 足太陽이 바로 관장하므로 이 두 經絡이 寒邪에 상하기 쉬운 것이다. 그 다음이 足少陽 足厥陰 肝膽 經인데 겨울철을 이은 봄에 冷氣가 아직 있는 때이니 대개 風木은 大寒節에 일어나는 것이니 즉 十二月中이요 春分에 이르러야 비로소 봄의 기운이 나타나니 風寒에 상하기 쉬운 것이다. 足陽明 太陰은 脾胃中土로서 中土는 정해진 方位와 때가 없어 四季節 사이사이에서 왕성하므로 寒熱의 邪氣 또한 모두 전해지는 것이며 모든 邪氣는 마지막으로 胃에 전해진다. 手經은 여름과 가을을 주관하기 때문에 寒邪에 傷하지 않으니, 足經은 損傷되고 手經은 損傷되지 않는다는 것은 理致에 합당하지만 足經에는 傳하고 手經에는 傳하지 않는다는 것은 理致에 어긋난 것이다.’<sup>9)</sup>라고 한 것과 傷寒四證類玄 4證은 다른 篇에 비해 너무 간략하고 문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제목의 뒤에 ‘出指掌圖’라고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관찰하여 볼 때, 傷寒四證類玄 4證은 陶華의 저작이 아니라 후세 책을 편찬하는 사람이 삽입하여 넣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脚氣의 證治에서 寒證에는 越婢湯이나 小續命湯에 生薑汁을 넣어 복용하고, 熱證에는 小續命湯에서 附子를 빼고 桂枝를 반으로 줄여 복용하고, 다리가 붓는 경우에는 木瓜散 檳榔散을 복용하고, 大便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脾約丸을 복용한다고 하여 후학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의의가 크다.

第8章. 小便自利

【原文】

太陽身黃은 小便當不利어늘 今反自利하며 其人如狂<sup>(1)</sup>은 血證<sup>(2)</sup>也니 抵當湯<sup>(3)</sup>이라

傷寒有熱하고 小腹滿은 應小便不利어늘 今反自利

9) 陶華. 傷寒瑣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 18.

는 爲有血也니 抵當丸<sup>(4)</sup>으로 下之요 尿血은 延胡索湯<sup>(5)</sup>이니 延胡索 朴硝二兩을 爲末하야 每服四錢호대 水二盞으로 煎八分하야 溫服이라

陽明自汗은 應小便不利어늘 而反自利는 津液內竭也니 屎雖硬이나 不可攻이요 宜蜜導煎<sup>(6)</sup> 豬膽汁法<sup>(7)</sup>이라

少陰四逆하고 小便自利는 虛寒也니 四逆湯 及眞武湯<sup>(8)</sup> 去茯苓이요 小便秘或赤으로 知內有熱也니 小便自利하며 其人如狂하며 小腹滿으로 知不爲熱이며 乃畜血<sup>(9)</sup>也라 若陽明津竭自利와 與夫少陰自利는 乃胞<sup>(10)</sup>寒不禁이니 不可溫乎아

【註釋】

- (1) 如狂: 瘀血 등 血分에 熱이 凝滯하여 나타나는 정신질환을 말함.
- (2) 血證: 畜血을 말함.
- (3) 抵當湯: 水蛭二十個炒 虵蟲三十個炒去翅足 桃仁三十個去皮尖 大黃三兩酒浸을 가루내어 물 五升到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검은 대변이 나올 때까지 복용한다.
- (4) 抵當丸: 水蛭二十個 虵蟲二十五個 桃仁二十個 大黃三兩 질구로 뺀아서 나누어 四個의 丸을 만들고 물 一升으로 一丸을 끓여서 七合을 取해, 이를 복용한다. 다음날에는 마땅히 下血될 것이나 만약 下血되지 아니하거든 다시 복용한다.
- (5) 延胡索湯: 延胡索 朴硝二兩을 細末하여 매회 四錢씩 복용하되 물 二盞에 넣어 八分이 되도록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 (6) 蜜導煎: 蜜七合을 銅器에 붓고 약한 불로 저으면서 졸여서 엷처럼 약간 엉기기 시작하여 환으로 만들 정도가 되면 손으로 끝이 뾰족한 손가락만 하게 만들어 항문에 넣고 막고 있다가 대변을 보려할 때 손을 떼어 관장하는 방법이다.
- (7) 豬膽汁法: 蜜導煎의 방법에서 꿀 대신 豬膽汁을 쓴다.

(8) 眞武湯: 茯苓三兩 芍藥三兩 生薑三兩 白朮二兩 附子一枚炮去皮破八片 물 八升到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인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하루에 세 번 七合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9) 畜血: 外感熱病으로 인해 熱邪가 裏部로 들어가 血分에 영향을 주어 瘀血이 내부에 쌓인 病證.

(10) 胞: 下焦 膀胱을 말함.

【國譯】

太陽病의 身黃症은 응당 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인데 도리어 저절로 나오며 如狂하는 것은 血證이니 抵當湯으로 치료한다.<sup>10)</sup>

傷寒에 熱이 있고 아랫배가 그득한 것은 응당 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인데 도리어 저절로 나오는 것은 血證이 있는 것이니 抵當丸으로 사하시키고<sup>11)</sup>, 오줌에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延胡索湯으로 치료하니 延胡索 朴硝二兩을 細末하여 매회 四錢씩 복용하되 물 二盞에 넣어 八分이 되도록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陽明病의 自汗은 응당 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인데 도리어 저절로 잘 나오는 것은 津液이 안에서 고갈된 것이니 대변이 비록 단단하지만 攻下해서는 안되고 蜜導煎와 豬膽汁法으로 치료한다.<sup>12)</sup>

少陰病에서 四肢가 逆冷하고 小便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虛寒證이니 四逆湯과 眞武湯에서 茯苓을 빼고 치료하고, 小便이 나오지 않거나 或 赤色이면 안에 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小便이 저절로 나오며 如狂하고 아랫배가 그득한 것으로 熱이 없고 畜血證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陽明病의 津液枯渴로 인한 自利와 少陰病의 自利는 下焦 膀胱이 寒하여 참지 못하는 것이니 溫法을 써야하지 않겠는가?

【考察】

小便自利의 원인에 대하여 畜血과 虛寒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畜血證에는 抵當湯 抵當丸을 투여

- 10) 太陽病 六七日 表證仍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發狂者 以熱在下焦 少腹當硬滿 小便自利者 下血乃癒 所以然者 以太陽隨經瘀熱在裏故也 抵當湯主之(131)
- 11) 傷寒有熱 少腹滿 應小便不利 今反利者 爲有血也 當下之 不可餘藥 宜抵當丸(133)
- 12) 陽明病 自汗出 若發汗 小便自利者 此爲津液內竭 雖硬 不可攻之 當須自欲大便 宜蜜煎導而通之 若土瓜根及大豬膽汁 皆可爲導 (242)

하고 虛寒에는 眞武湯에서 茯苓을 뺀 것과 四逆湯의 類로 치료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第9章. 熱入血室

#### 【原文】

婦人中風하야 發熱惡寒한대 經水適<sup>(1)</sup>來하야 得之七八日에 熱除하야 脈遲身涼이로대 胸脇滿如結胸<sup>(2)</sup>狀하야 譫語<sup>(3)</sup>者는 此爲熱入血室<sup>(4)</sup>이니 當刺期門<sup>(5)</sup>하야 隨其實而瀉之라

婦人傷寒하야 發熱한대 經水適來하야 晝日明了하고 暮則譫語如見鬼狀은 此爲熱入血室이니 無犯胃氣及上中二焦면 必自愈라

婦人中風七八日에 續得寒熱發作하야 經水適斷은 此爲熱入血室이라 其血必結 故로 如瘧狀하니 小柴胡湯<sup>(6)</sup>이라

陽明에 下血譫語는 此爲熱入血室이니 但頭汗出者는 刺期門하야 隨其實而瀉之면 澌然汗出<sup>(7)</sup>而愈라

婦人熱入血室에 有二經水適來로대 二條에 不言藥者는 蓋以經血方來하면 熱氣乘虛而入하니 經血止 則熱亦出矣 故로 不可用汗下藥하야 犯其胃氣及上中焦라 如其胸滿譫語는 此內實也니 刺期門以瀉之요 若經水適斷한대 續得寒熱은 其血必結 故로 用小柴胡湯이라

若陽明 熱入血室은 此男子失血之證이니 但當刺以瀉熱也라

#### 【註釋】

- (1) 適: 마침 적.
- (2) 結胸: 太陽病이나 太陽 少陽 兼病을 잘못 瀉下하여 表熱이 內陷하거나 實邪가 裏部로 들어가 胸中의 水飲과 뒤섞여 발생하는 것으로 胸腹이 脹滿하고 疼痛하여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3) 譫語: 陽明實熱 혹은 溫邪가 營血로 들어가 熱邪가 神明을 요동하여 神志不清 胡言亂語 등의 重證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 (4) 熱入血室: 부녀자가 月經期 혹은 產後에 外邪를

감수하여 邪熱이 虛한 틈을 다서 血室에 침입하여 血과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病證이다.

- (5) 期門: 足厥陰肝經에 속하며 肝의 募穴이고, 足太陰經 足厥陰經 陰維脈이 會合하는 곳이다. 乳頭에서 4寸 직하한 부위로서 제6肋間隙에 해당한다.
- (6) 小柴胡湯: 柴胡半斤 黃芩三兩 人參三兩 半夏半斤 甘草炙 生薑各三兩 大棗十二枚 물一斗二升到에 넣고 六升이 되도록 달인 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三升이 되도록 달여 하루에 세 번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7) 澌然汗出: 땀이 어느 정도 줄줄 흐르게 나는 모양.

#### 【國譯】

婦인이 바람을 맞아 發熱 惡寒한데 마침 經水가 이르러 병을 얻은 지 七八日에 熱이 사라지고 脈은 느려져 몸이 서늘해졌는데 結胸처럼 胸脇이 그득하고 譫語하는 것은 熱入血室이니 마땅히 期門을 자침하여 實한 곳을 찾아 瀉下해야 한다.<sup>13)</sup>

婦인이 傷寒으로 發熱한데 마침 經水가 이르러 낮에는 상쾌하고 밤에는 귀신이 보이는 듯 譫語하는 것은 熱入血室이니 胃氣 및 上焦 中焦를 범하지 않으면 저절로 낫는다.<sup>14)</sup>

婦인이 中風을 얻은 지 七八日에 계속 寒熱이 發作하다가 마침 經水가 그치는 것은 熱入血室이다. 반드시 血結하는 까닭에 瘧疾처럼 寒熱이 왕래하니 小柴胡湯을 투여한다.<sup>15)</sup>

陽明病에 下血하면서 譫語하는 것은 熱入血室이니 머리에만 땀이 나는 경우에는 期門을 刺鍼하여 實한 곳을 찾아 瀉下하면 촉촉하게 땀이 나면서 낫는다.<sup>16)</sup>

婦인의 熱入血室證에 經水適來가 두 번 나오는데,

- 13) 婦人中風 發熱惡寒 經水適來 得之七八日 熱除而脈遲身涼 胸脇下滿 如結胸狀 譫語者 此爲熱入血室也 當刺期門 隨其實而瀉之 (151)
- 14) 婦人傷寒 發熱 經水適來 晝日明了 暮則譫語 如見鬼狀者 此爲熱入血室 無犯胃氣及上二焦 必自愈 (153)
- 15) 婦人中風 經水適斷 七八日 續得寒熱 發作有時者 此爲熱入血室 氣血必結 故似如瘧狀 發作有時 小柴胡湯主之 (152)
- 16) 陽明病 下血 譫語者 此爲熱入血室 但頭汗出者 刺期門 隨其實而瀉之 澌然汗出則癒 (226)

두條에서 藥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대개 經血이 나오기 시작하면 熱氣가 虛한 틈을 타고 들어가고, 經血이 그치면 熱 또한 나오게 되는 까닭에 汗下藥을 써서 胃氣와 上焦 中焦를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만약 가슴이 그득하면서 謔語하는 것은 內部가 實한 것이니 期門을 刺鍼하여 瀉下시키고, 마침 經水가 그쳤는데 계속 寒熱이 왕래하는 것은 血結이 된 까닭에 小柴胡湯을 투여하라고 한 것이다.

陽明病의 熱入血室은 男子의 失血證이니 마땅히 刺鍼하여 熱을 瀉下해야 한다.

【考察】

熱入血室의 虛實을 經水適來와 經水適斷으로 구분하였는데, 經血이 나오기 시작하면 熱氣가 虛한 틈을 타고 들어가고, 經血이 그치면 熱 또한 나오게 되는 까닭에 虛證으로 보아 汗下藥으로 胃氣와 上焦 中焦를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마침 經水가 그쳤는데 계속 寒熱이 왕래하는 것은 血結이 된 까닭에 實證으로 보고 小柴胡湯을 투여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婦人은 血로 用事를 하고 한달에 한번 月事가 있어 血이 虛해지기 쉬우니 汗吐下의 치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和法으로 치료해야 한다.

또한 陽明病의 熱入血室을 男子의 失血證으로 보았는데, 陶華는 『傷寒家秘的本熱入血室』에서 ‘衝脈은 血海이고 血室이니 男女에 모두 血氣가 있고 또한 모두 衝脈이 있다. 이것이 熱을 얻으면 반드시 血이 妄行하여 男子는 下血하고 謔語하니 邪熱이 正陽明인 胃腑로 傳入했기 때문이요, 婦人은 瘧疾처럼 寒熱이 왕래하니 邪氣가 經을 따라 들어갔기 때문이므로 모두 熱入血室證이다.’라고 하여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니 타견이라 할 수 있다.

#### IV. 考察 및 結論

이상과 같이 陶華의 『傷寒明理續論』 動氣의 8證에 대한 관련 內容을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動氣는 모든 藏에 있으니 眞氣가 안으로 虛하고 水氣가 흩어지지 않고 맺혀서 眞氣와 더불어 相搏하

여 발생하며 理中湯에서 白朮을 빼고 桂枝를 加한 것으로 통용한다.

2. 蛔厥에서 蟲病에 대하여 蛔厥은 輕證으로 理中丸 烏梅丸로 쉽게 치료할 수 있으나, 狐惑과 濕蘼은 重證으로 扁鵲과 같은 名醫도 바라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므로, 狐惑과 濕蘼의 치료는 桃仁湯 黃連犀角湯 雄黃銳散을 通用하는데, 陽氣가 없는 경우에는 金液丹을 투여한다고 제시하였다.

3. 百合病의 원인에 대하여 孫思邈 王燾 徐忠可 程林 등은 傷寒의 虛勞로 인한 大病 후에 인체의 正氣가 허약하여 營衛氣血이 失調한데 餘邪가 남아서 발생한다고 보았고, 趙以德은 情志所傷으로 보았으며, 吳綬는 傷寒을 誤治하여 正氣가 허약해져 발생한다고 보았고, 飯田鼎在는 房勞過多로 보았는데, 先天後天의 陰陽氣가 모두 허쇠하여 心主血 肺主氣의 氣血循環이 원만하지 않은데다 餘邪가 남아 陰虛內熱의 증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모두 일리가 있다. 脈微數에 대하여 『金匱要略』에서는 위 문단에 붙여서 百合病에 나타날 수 있는 主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不仁은 통증 가려움 차가움과 뜨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不仁을 피부의 감각기능이 둔해지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았으니, 手足不利 등의 不利의 개념은 근육의 운동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5. 霍亂에서 邪氣가 中焦에만 머물러 있는 吐利와 胃氣가 邪氣의 손상을 받아 陰陽이 서로 격리되어 구토하면서 설사하는 霍亂을 구별하여 논하고, 霍亂은 乾霍亂과 濕霍亂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乾霍亂은 손상된 음식물이 나오지 않아 正氣를 막고 陰陽氣가 離隔하여 升降이 통하지 않아 吐利하지 않고 腹痛이 심한 것이고, 濕霍亂은 구토 설사 두통 惡寒 發熱 腹痛하며 或 吐利가 그치면 熱이 나면서 脈을 요란하여 잠복하기도 하며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제창하였다.

6. 瘥後昏沈은 大病을 앓고 나서 나타나는 증에 따라 表邪가 약간 울체한 경우에는 知母麻黃湯으로, 中焦의 陽氣가 虛해져 津液을 攝取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理中丸을, 虛煩일 경우에는 竹葉石膏湯에 生薑을 加하여 투여한다.

7. 傷寒四證類彙 4證은 傷寒은 아니지만 나타나는 증후가 傷寒과 비슷한 類傷寒에 대하여 논한 것이며, 傷寒四證類彙 4證은 다른 篇에 비해 너무 간략하고 문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제목의 뒤에 '出 指掌圖'라고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관찰하여 볼 때, 傷寒四證類彙 4證은 陶華의 저작이 아니라 후세 책을 편찬하는 사람이 삽입하여 넣은 것으로 보인다.

8. 便自利의 원인에 대하여 畜血과 虛寒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畜血證에는 抵當湯 抵當丸을 투여하고 虛寒에는 眞武湯에서 茯苓을 뺀 것과 四逆湯의 類로 치료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9. 熱入血室의 虛實을 經水適來와 經水適斷으로 구분하였고, 陽明病의 熱入血室을 男子의 失血證으로 보았는데, '衝脈은 血海이고 즉 血室이니 男女에 모두 血氣가 있고 또한 모두 衝脈이 있다. 이것이 熱을 얻으면 반드시 血이 妄行하여 男子는 下血하고 讖語하니 邪熱이 正陽明인 胃腑로 傳入했기 때문이요, 婦人은 瘧疾처럼 寒熱이 왕래하니 邪氣가 經을 따라 들어갔기 때문이므로 모두 熱入血室證이다.'라고 하여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4. 成戊己 註解. 仲景全書註解傷寒論.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5. 章楠. 醫門棒喝上.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6. 張仲景. 古本 康平傷寒論.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7. 朱肱. 增註南陽活人書. 서울. 三和精版社. 1987.
8. 蔡仁植 譯. 金匱要略精解.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6.
9.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10. 喻嘉言. 醫門法律上. 서울. 東南出版社 影印. 1986.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1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4.
13. 吳謙 등. 醫宗金鑑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4. 劉河間. 劉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影印. 1976.
15. 張璐.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3.
16. 陶華. 傷寒全生集. 서울. 醫聖堂 影印本.

## 參考文獻

<단행본>

1. 鄒澍.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2.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3. 成戊己 註解. 仲景全書傷寒明理論.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